

이른 새벽에 본 방송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으시는 말씀이 믿음에 화합하여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코리아 설교 24회

24. 새 하늘 새 땅(10.9.10. 24회)

2010년 10월 9일(안식일 아침)

[사65:17~19]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19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序;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으면 그분이 시작한 구원 사업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으면 구원사업은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어도 속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상이 처리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영생의 생명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인데 부활은 바로 생명으로 옮긴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이 없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생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일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생으로 부활할 때 구원이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영생의 생명으로 살까요? 이렇게 구질구질한 세상에 그냥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셔서 영생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살게 하십니다. 그때 구원의 모든 과정이 완성됩니다.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왜 창조하시는지 그 곳이 어떤 곳인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1은 이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때 창조된 천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처음 창조했을 때 그것은 아름답고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성경은 함1:13은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신다고 계시합니다. 그런 정결한 눈으로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다고 하셨다면 그 창조된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했는지 짐작하기에 넉넉하지 않습니까.

[창1:31]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6일 동안 일곱 번이나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에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이었겠습니까.

이 완전한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115:16]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지구 외에 다른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에는 지구에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사는 세계가 많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역사적으로 훌륭한 신학자들도 지구 외에는 우주에 사람 사는 다른 곳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칼뱅도 그런 주장을 한 신학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지구 외에도 사람 사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38:4~7]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6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7 그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이 지구의 기초를 놓고 지구를 창조하실 때 그것을 기뻐하며 찬양한 천사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지요. 대체적으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대로 아내를 취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도 천사라고 해석하는 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히1:5]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 중 아무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일이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지구를 창조하실 때 노래한 새벽 별들은 천사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른 우주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주의 장자 총회에 대하여 계시합니다.

[히12:23]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있다는 것을 계시해줍니다. 다른 우주 세계의 첫 사람들이지요. 성경은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눅3:38]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니시니라.

이 말씀은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고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것처럼 다른 세계의 첫 사람으로 창조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구가 창조되기 보다 먼저 창조된 세계의 하나님의 장자들이 지구가 창조되는 것을 보고 기쁘게 소리한 것입니다.

그처럼 지구의 창조는 우주의 경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다 완전했습니다. 이 야기가 빗나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이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창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만일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런 아름다운 세상에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러

나 죄가 들어오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오늘날과 같이 처음 창조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이 사라져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름다운 곳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회복 해주실 새 하늘 새 땅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세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창조한 세상도 사실은 역시 처음에는 새 하늘 새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모든 아담 후손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 된 나라를 상속하라.”(마25:34)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상속할 나라는 창세로부터 예비 된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마5:5) 결국 구원이 완성될 때 이 지구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되면서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2. 사람을 회복하심

죄가 들어옴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망가졌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이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죄인 된 사람에게 나타날 죄의 성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창조 질서가 변질 된 것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만물이 썩어짐의 종노릇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롬8:2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지구와 관련된 피조물은 원래 창조되었던 상태를 간직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히9:27) 이렇게 된 사람을 원래 창조한 상태로 회복시키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원상회복하도록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구 환경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복한 중에 영생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친교를 나누며 지구의 모든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다 가장 완전한 상태로 다스리면 됩니다.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는 중에 감사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지구에 모든 피조물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완전하면 환경도 완전할 것입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한국에는 경치가 좋다는 심산 유곡까지 다 자동차들이 들어가며 유흥 객들이 와글거립니다. 그렇게 깨끗하던 산천이 사람들이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더럽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상태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할지라도 그 하늘과 그 땅은 곧 더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이지요.

러시아의 문화 토스토예프스키의 “어떤 백치의 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백치가 꿈에 공중으로 자꾸 날아올라가서 어떤 세계에 도달합니다. 그 세계는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

습니다. 싸움도 없고, 도둑도 없고, 정말 행복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치가 한참 그렇게 지내다보니 너무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도둑질하는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러자 도둑질은 전염병처럼 번져서 곧 도둑질이 유행하고 결과로 싸움이 생기고, 그 행복하고 평화롭던 곳이 살벌하고 백치가 살던 지구처럼 변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관계와 환경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코믹하게 만든 이야기이지요. 모든 것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어도 곧 현재의 지구와 같이 되어버릴 것을 아십니다. 이미 한 번 그런 결과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새 사람을 만들고 후에 그 새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새 아담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고전15:45) 그분이 첫 아담이 사망이 된 그것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 아담의 생명의 사망을 이긴 영원한 생명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이김에게 삼킨바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후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먼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려면 세상이 거듭나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이 거듭날 때 새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19:28]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에서 “새롭게 되어”라는 말은 “거듭나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디도서3:5에는 이 말이 중생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헬라말로 “팔링게네시아”인데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은 세상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3. 만물을 새롭게 하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데, 그 수가 땅에 충만하게 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충만이 얼마나 되는 수인지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아무튼 구원받은 사람은 이 지구에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세상에서 살 때에는 생육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눅20:35,36]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36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

님의 자녀임이니라.

부활한 사람들은 결혼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고 천사와 동등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상태로 창조된 것이 아니지요. 성경에 기록된 천사들의 상태를 보면 동시에 모든 천사들을 다 지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천사와 동등입니다. 이미 세상에서 땅에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땅에 충만하게 되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이 살 나라를 마련하셨는데, 곧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영토는 지구입니다. 이 사실은 다니엘 2장의 우상의 형상으로 세상의 장래를 예언한 것을 연구하는 시간에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고 하실 정도로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된 그 지구를 다시 완전하고 아름답게 새롭게 하십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고 하실 것은 확실합니다.

지구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때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하늘에서 1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하신 후에 다시 이 지상으로 내려오신 다음입니다.

그때 먼저 예수께서 그 발을 땅에 디디십니다. 그곳은 감람산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닿은 땅이 갈라져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앉을 자리가 준비되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슌14:4,5)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은 그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진주 문이 닫힙니다. 다음에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던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1천년 동안 미혹할 대상이 없어 갇혀 있던 사단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을 보고 신이 납니다. 그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곡과 마곡입니다. “천 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8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계20:7,8) 사단은 둘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악인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땅 사면에 퍼져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계20:9) 새 예루살렘 성이 땅에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포위 되었을 때 예수께서 새 예루살렘 안의 높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악인들이 소멸되어야 할 분명한 판결을 선고하십니다.

[계20:11~13]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 준다는 말씀은 바로 악인들이 둘째 부활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 선고를 받습니다.

[눅12:47,48]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형벌 받는 사람들이 형벌 받을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고통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고통이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습니다. 다 영원한 불로

소멸되어 재가 됩니다. 그래서 창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이 됩니다.

천국 한 모퉁이에 지옥불이 타면서 고통당하는 죄인들이 천국을 쳐다보고 혀에 물을 한 방울만이라고 떨어뜨려 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듣고 보는 천국이라면 과연 천국이 될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의 인생들도 그런 경우에 동정하고 함께 마음이 떨리고 아픈데 향차 천국에서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과 평화로 살아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집니다.

이미 몇 차례 말씀한 대로 마귀도 없어집니다.(히2:14) 그런데 마귀 때문에 죄를 지은 죄인들은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도록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악인들로 마귀처럼 없어집니다. [시37:10]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이다. 그들은 영원한 불로 소멸되어 재가 됩니다.

[유7]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소돔고모라가 아직도 불타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완전히 불타서 흔적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벧후2:6]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고모라가 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후세의 경건치 아니할 자들도 재가 된다는 본이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님의 손바닥에 못 자국이나 옆구리의 창 자국 외에는 우주 어디에도 죄와 관련된 흔적은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절대로 공평한 판결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선고된 형량에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 예수님께 경배하며 그들에게 내려진 선고가 의롭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빌2:9~11]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을 것이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한 악인들뿐만 아니라 사단과 모든 우주 거민들, 천사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주의 모든 거민들과 이제 유황불에 소멸될 사단과 악인들까지 다 예수님께 경배하며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악인들, 곧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모든 존재들이 그 존재를 반납하고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될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은 존재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사릅니다. 그들의 정도에 따라서 불타는 기간이 다를 것입니다.

불로 정결하여진 이 지구에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좌에서 선언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계21:5)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사65:17~19]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

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19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참 인류가 얼마나 고대하던 상태입니까. 그곳에 애청자 여러분이나 저도 꼭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새 예루살렘의 장려한 상태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21:13부터 기록되어 있지요.

[계21:10~27]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13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니 14 그 성에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십이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15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척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16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일만 이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17 그 성곽을 척량하며 일백사십사 규빗이니 사람의 척량 곧 천사의 척량이라 18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0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21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22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3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2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25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26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참 장려한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본 모양을 성령의 감동으로 아주 생생하게 묘사했지만 바울의 기록을 보면 이것보다 훨씬 뛰어난 모양 같습니다.

[고전2: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물론 이 말씀은 복음의 심오함에 대한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도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은 합당합니다. 얼마나 화려 장려한 것인지 감히 상상을 불허하는 세계라는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기록대로 하면 엄청 큰 도성입니다. 네모가 반듯한데 각 면이 12,000 스타디온입니다. 12,000스타디온은 2400Km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2400x2400 평방입니다. 곧 5760,000km² 5백7십6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한반도가 22만 평방 킬로미터지요. 한반도의 26배 크기의 도성입니다. 성벽 한 면에 세문씩 열두 성문은 문마다 진주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 크겠지요. 문 위에는 이스라엘 열 두 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길은 순금으로 깔리고, 성벽은 유리같이 맑은 정금입니다. 인간의 필설로 다 묘사할 수 없는 장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무엇인가 상징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성이 있을까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있다고 믿습니다. 그 성의 기초 석은

12보석인데 그 위에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복음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의 복음 기별을 듣고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 된 백성들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애청자들께서는 이 성을 예약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 된 사람은 이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일찍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상태를 여러 말로 묘사했습니다.

[사11:6~9]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7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35:1~10]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보다 3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4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5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6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냇가 흐를 것임이라 7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의 늪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8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9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습니까.

[사60:17~22]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18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19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취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20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21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22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난 세상에는 거듭난 사람 외에는 결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성에는 생명나무가 생명 강 좌우에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에덴동산에 있던 바로 그 나무입니다. 계2:7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나무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생명 강가에 있습니다.

[계22:1,2]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2:7에 생명나무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동산의 바로 그 생명나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연약하여져서 키가 작아지고 체격이 왜소해졌던 사람들이 이 생명과실을 먹고 그 잎사귀 그늘에서 지낼 동안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외모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만국을 소성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곧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거듭난 사람들을 그곳에 불러들여 살게 하실 때 애청자들과 제가 그곳에 꼭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피조물 중에 하나와 같이 되셔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희생이며 사랑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예비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와서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런 수모를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우습게 여기는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사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거듭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다가 그날 새 하늘 새 땅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기쁨에 꼭 함께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기도 합시다.

기도; 사랑이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 하늘 새 땅을 마련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을 거기서 살도록 재림하셔서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다가 그날 주님을 영광중에 만나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꼭 들어가서 살도록 복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374-9480으로 연락하시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374-9480으로 연락하시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